

종교교육학연구 제12권. pp.27 50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1.

유교와 대학의 교양교육

이 세 현

(성균관대 유교문화연구소 연구원)

《요약》

본 논문은 대학에서의 교양 교육과 유교와의 상관 관계에 대하여 종교 교육적 측면에서 고찰한 것이다. 교육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과 기술의 습득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것들을 도구로 사용하는 주체인 인간의 인격 교육을 목적으로 할 때 철학의 영역과 종교는 만나게 된다. 유교에서 교육과 수양의 목표는 만물의 완성이다. 즉, 자신의 타고난 본성에 대해 자각하고 이를 계발하여 도덕적 완성을 이룬 인간과 사회를 만듦으로서, 자신만이 아닌 다른 존재 역시도 도덕적 인격을 함양하여 조화로운 인간을 형성하는데 있다. 유교의 중요한 교육 방법은 육예(六藝)인데 이것은 바로 교양과 인격을 갖춘 인간을 양성하고자 한 것이다.

한국에서는 삼국시대로부터 교과 과정을 통하여, 그 교육 목적을 이해할 수 있겠다. 『논어』와 『효경』을 중심으로 하는 유교 경전의 교육은 인간 교육을 교육의 기본으로 삼은 교육 목표에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유교적 교육은 인간학적 차원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학적 차원의 교육에서는 윤리와 도덕이 개입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종교로서의 유교와 철학으로서의 유교가 만날 수 있는 접점이 형성된다. 즉, 종교를 통해 인간이 체험하는 성(聖)스러움 혹은 성스러운 존재에 대한 이해는 인간에게 어떤 행동을 구속하거나 명하는 성격을 지니며, 인간은 그 뜻을 헤아리고 깨닫고 받들며 살아가며 마침내는 인간이 걸어가야 할 길 즉, 윤리를 규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이율배반적인 것처럼 이해될 수 있는 종교와 도덕(윤리)은 본질적으로 연관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배척의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의 관계가 성립한다. 현대의 학문과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바는 사실 판단의 차원을 넘어서는 가치 판단이다. 대학에서의 교양 교육은 고도화된 산업 사회에서 기능의 운용을 담당할 인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핵심 주제어 : 인간학적 교육, 명심보감, 소학, 윤리, 성(聖) 체험, 가치판단

《Abstract》

Confucianism and Cultural Education in University

Lee, Se-Hyun

The study analyzes the relations between Confucianism and Cultural education in university in the aspect of religious education. The arena of philosophy is in accord with that of religion when education not only intends to simply convey knowledge and acquire skills but also aims at Education for Personality of human-being as the subject to make use of them as tools.

In Confucianism, the goal of education and self-improvement [mental training] is to complete all creation. That is to say, it is to make human-being and society realize and enlighten ones own inborn character to accomplish moral completion, and furthermore form harmonious human being as other beings also foster their own moral personality. The key education means in Confucianism is the Six Method of Education(六藝) through which human beings become to be equipped with well-educated personality.

In Korea, its educational purpose can be understood in the school curricula since the Three-Countries Period. The Confucius scriptures representative of *Lunyu*(論語) and *Xiaojing*(孝經) are based on the educational goal to cultivate human beings. This Confucius education comes under the kind of humanist education.

Moral principles and morals are involved in the humanist education. In this ground, a point of contact is formed where Confucianism as religion meets with Confucianism as philosophy. That is, human-beings experience of holy and understanding of holy being through religion implies the constraint or order of some behaviors to human beings, and thus human-beings consider, understand and live with the implication and finally define moral principles, the way for human being to pursue.

Like this, religion and morals [moral principles], which can be understood as antinomy, are fundamentally related in compensatory, but not conflict, mode. Modern scholarship and education should pursue the estimation of value over facts. Cultural education in university should work for human beings to take charge of functions in highly industrialized societies.

Key words : Education for personality, Myungsimbogam(明心寶鑑), Sohak(小學), Moral principles, Experience of holy, Estimation of value

I. 들어가는 말

최근 한국의 대학 교육은 여러 측면에서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또한 많은 부분에서 그 변화된 양상들이 실현되고 있다. 실현된 변화의 내용은 단순히 제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교육의 내용에서도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다. 변화된 내용들은 보는 시각에 따라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들이 공존하고 있을 것이다.

급속한 변화에 적응하며 살아가야 하는 오늘날과 같은 산업사회에 있어서의 교육은 점차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데 치중하는 이른바 기능 교육에 편중하는 경향으로 흐르고 있다. 현실 사회에서 직접적인 효용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어야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 사회에 있어서 직업은 분화내지는 전문화되고 있으며 따라서 전문적인 기능을 구비하지 못한 사람은 무용지물처럼 취급되며 한편으로는 낙오자 취급을 받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현대 산업사회에서의 교육이 기능 교육을 중요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기능 교육을 강조하다보면, 교육은 부지불식간에 기능의 사용 주체인 인간 교육 곧 인격 교육을 등한히 하고 망각하는 경향에 흐르기 쉽다. 사실 오늘의 교육 현실을 보고 있으면 지식을 가르치고 기술을 훈련하는데는 시간과 돈을 아낌없이 투입하고 있지만 인간 교육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기능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수단은 선하고 바른 목적에 봉사하게 되면 선하고 바르게 될 수 있지만 그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악하고 그릇된 목적 달성의 도구가 되면 사악한 것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은 그것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주체로서의 인간이 선하고 바른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있을 때라야 선하고 바르게 사용될 수 있다.

교육이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고 기술을 훈련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형성하는 인간 교육까지를 문제삼을 때 교육은 철학과 만나게 되고 종교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인간 교육은 생의 가치와 이념을 문제삼지 않으면 안되고 생의 가치와 이념은 곧 철학과 종교의 세계에 속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육이 단순히 지식

의 전달과 기술의 습득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것들을 도구로 사용하는 주체로서의 인간의 인격 교육까지를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전인 교육을 추구할 때는 당연히 철학과 종교와 만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철학자인 Whitehead는 교육의 목적을 논하면서 “교양은 사상의 활동이요 미와 인간적 감정에 대한 감수성이다. 주어진 모든 단편적인 지식은 교양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단순히 지식만 많이 가지고 있는 인간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파편한 존재이다. 우리가 키워내기를 목적하여야 할 것은 교양과 특정한 방면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함께 구비한 인간이다”¹⁾라고 하였다. Whitehead의 이 말은 전체 교육의 기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특히 교육이 교양과 전문적 지식을 함께 구비한 사람을 키워야 한다는 이 말은 오늘의 교육 현실에서 다시 한 번 음미해야 할 언급이라고 생각된다.

II. 유교의 교육과 교양 교육

1. 유교의 교육 목표

유교적 입장에서 이해하는 인간은 ‘착한 성품’을 소유한 존재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삶을 영위하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욕망을 소유하고 있음을 또한 인정한다. 즉, 육체를 지니며 살아가는 존재인 인간은 본래적으로 소유한 착한 성품에 여러 욕망들이 끼어들게 되어 나쁜 버릇을 몸에 익히기도 하고 개인적인 기질의 충동에 의해 악한 짓을 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래대로의 모습인 타고 날 때부터의 성품으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 그것을 ‘복초(復初) 또는 복성(復性)’이라고 한다. 이것은 교육으로부터 가능해진다.

『논어』에 보면 공자가 위(衛) 나라에 갔을 때, 제자인 염유(冉有)가 수레를 몰며 모시고 있었다. 공자께서 위나라에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고서 “백성들이 많기도 하구나” 하고 인구의 많음에 놀라움을 나타내었다. 그러자 염유가 백성들이 많은 다음에는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묻자 공자는 부유하게 해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자 염유가 백성들이 부유해진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하고 묻자, 공자는 “가

1 高範端, 『産業社會와 大學教育』, (서울: 기독교문사, 1981), 121쪽에서 재인용.

르쳐야 한다”고 하였다.²⁾ 즉, 인간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교육이 뒤따라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공자는 여섯 가지의 방법[六藝]³⁾으로 제자들을 교육하였다. 육예의 내용을 보면 인격을 갖추기 위한 제 방면의 수양된 인간을 양성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육예에 통달하여야만 이상적인 인격을 소유한 군자(君子)가 될 수 있는 소양이 갖추어지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유교의 교육은 단순한 지식의 습득만을 중요시 한 것이 아니고 인간으로서 반드시 갖추어야만 하는 인간다움의 형성을 중요시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전인격적(全人格的) 인간 교육을 지향하는 것이다.

또한 유교의 교육이 추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지향점은 만물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는 일차적으로는 자신의 내적 수양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그 수양은 사회에 실현되어야 하며 그 결과 모든 인간 존재들의 도덕적 완성이 이루어진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⁴⁾ 즉, 나와 너 그리고 만물의 완성을 궁극처로 삼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이루어질 수 있는 궁극적인 이상은 우주 만물의 질서와 하나가 되는 천인합일의 경지를 이루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맹자는 ‘인간의 타고난 본성을 극진히 닦아 나아가면 하늘의 이치에까지 이를 수 있다’⁵⁾라고 한다. 즉, 인간은 자신의 타고난 본성을 극진히 닦아 나가면 결국은 하늘의 이치를 이해하는 데까지 이르러 결국은 인간과 우주 만물의 경지가 하나로 만나게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경지는 대자유의 경지일 것이다. 그러한 대자유의 경지에 대해 공자는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따를지라도 법도를 넘지 않았다.”⁶⁾고 하였다. 공자는 이 과정에 이르기 위하여

2 『論語』, 「子路」 09 : 子適衛 冉有僕 子曰 庶矣哉 冉有曰 既庶矣 又何加焉 曰富之 曰既富矣 又何加焉 曰教之.

3 六藝는 禮, 樂, 射, 御, 書, 數를 말한다. 禮는 일상 생활에서의 행동 준칙으로 확장된 개념으로 天理를 본받아 이룩한 문물제도 등 문화 전반을 뜻한다. 즉, 이 세상의 인간 질서를 뜻한다. 樂은 음악으로 인간의 정서를 순화시켜 주며 공감대를 형성하기 쉽게 된다. 射는 활쏘기로 심신을 단련하는 스포츠일 뿐만 아니라 수양의 방편이기도 하다. 御는 말타기이다. 말을 몰거나 수레를 몰때는 정정당당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 역시도 스포츠인 동시에 정신수양을 위한 것이다. 書는 글쓰기이다. 글씨는 그 글씨를 사람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단지 잘 쓰는 것만을 능사로 삼지 않고 얼마나 정성들여 또박 또박 경건하게 글씨를 쓰는가가 중요하다. 數는 셈하기이다. 고대의 동양의 경우는 발달된 수학을 바탕으로 太陰曆 등의 천문학 등이 발달하였다.

4 『論語』, 「憲問」 45 : 修己以敬 修己而安人 修己而安百姓 / 『大學』, 經1章 : 大學之道 在明明德 在親民 在止於至善.

5 『孟子』, 「盡心章句上」 : 盡其心者 知其性也 知其性則知天矣.

15세에 학문에 뜻을 두기 위한 과정부터 50세에 천명을 알고 60세에 이르러 귀가 듣는 것이 순하게 모두 그대로 이해될 수 있는 과정을 거쳤다.⁷⁾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궁극적인 이상에 대하여 『중용』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오직 천하의 지극한 정성스러움만이 자신의 성(性)을 다할 수 있게 된다. 자기의 성(性)을 다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의 성을 다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성을 다할 수 있으면 만물의 성(性)을 다할 수 있으며, 만물의 성을 다할 수 있으면 이로써 천지의 화육(化育)을 도울 수 있다. 이렇게 하여서 천지의 화육을 도울 수 있으면 천지와 더불어 참여할 수 있다.⁸⁾

유교의 교육론은 단지 자신의 완성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완성을 이루는 ‘성기(成己)’와 다른 존재의 완성인 ‘성물(成物)’의 경지를 동시에 그 이상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⁹⁾ 이렇게 교육과 수양을 통하여 이상적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고는 유교 사상의 전반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2. 한국 유교의 교과 과정과 교양 교육

한국에서의 유교의 교육은 삼국 시대로 소급되어 파악될 수 있다. 삼국 시대로부터 근대 학교제도의 성립 이전까지 즉, 고전(古典) 대학을 중심으로 교과 과정을 살펴봄으로서 교육을 통하여 추구하고자 하였던 교육 목적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삼국 가운데 가장 먼저 학교 교육이 시행된 것은 고구려이다. 고구려는 소수림왕 2년(372) 태학(太學)을 설립하여 유교 경전을 교육하였다.¹⁰⁾ 고구려에 비하여 백제의 경우

6 『論語』, 「爲政」 04 : 七十而從心所欲不踰矩.

7 『論語』, 「爲政」 04: 子曰 吾十有五而志于學 三十而立 四十而不惑 五十而知天命 六十而耳順.

8 『中庸』, 제22장 : 惟天下至誠 爲能盡其性 能盡其性則能人之性 能盡人之性則能盡物之性 能盡物之性 則可以贊天地之化育 可以參天地之化育 則可以與天地參矣.

9 金聖基, 「다종교사회와 유교의 종교적 의미」,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종교교육학연구》 8, 1999, 42쪽.

10 『舊唐書』 卷199, 「列傳」 149, 「東夷傳」 ‘高麗’條에 보면 高句麗에는 五經과 史記, 漢書, 後漢書, 三國志, 孫盛晉春秋, 玉篇, 字統, 字林, 文選 등의 典籍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其書有五經及史記 漢書 范曄 後漢書 三國志 孫盛 晉春秋 玉篇 字統 字林 又有文選) 이로써 太學의 교과과정은 五經을 중심으로 하는 유교 사상과 三史를 비롯한 역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는 기록이 정확하지 않아 그 단초를 찾기가 쉽지는 않다. 그러나 박사(博士) 고흥(高興)이 처음으로 백제의 역사서인 『서기(書記)』를 편찬하였다는 기록을 볼 수 있다.¹¹⁾ 이것은 고구려의 태학 박사인 이문진(李文眞)의 경우와 같다. 이문진과 고흥의 역할이 매우 흡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백제에도 고구려와 같은 성격의 교육 기관을 국가에서 설치되어 운영하였으며, 오경 박사(五經博士)·역 박사(易博士) 등의 박사라는 관직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 방면의 교육이 시행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겠다. 신라는 통일 과업을 완수하고 난 후인 신문왕(神文王) 2년(682) 국학(國學)을 설치한다. 이 국학은 당(唐)의 국자감(國子監) 제도를 참작하여 설치된 중앙의 국립 최고 유학 교육기관이며 문묘(文廟)의 제도를 갖춘 향사(享祀) 기관이기도 하다. 이것은 이후 고려의 국자감, 조선의 성균관(成均館)과 성격을 같이 하는 것이다. 그러난 국학은 당의 국자감과 내용 많이 달리하며 신라의 대학으로서의 특수성을 갖추게 된다.

『삼국사기(三國史記)』, 직관지(職官志)의 ‘국학(國學)’조(條)를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유교의 경전을 중심으로 하여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으로 나뉘어져 있다. 교양과목은 『논어』와 『효경』으로 되어 있었으며 이것들은 공통 필수 과목이었다. 그리고 전공 과목은 주역(周易)과 상서(尙書)·모시(毛詩)·예기(禮記)·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문선(文選)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전공 과목을 이수하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교양 과목인 『논어』와 『효경』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었다.¹²⁾ 두 경전이 교양 과목이면서 동시에 공통 필수 과목으로 지정된 것은 바로 인간 교육을 교육의 기본으로 삼은 교육 목표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고려의 경우도 국자감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 과정을 살펴보면, 유불도(儒佛道) 삼교(三敎)가 혼재 되었으며 특히 국민 정서 차원에서는 불교가 유효한 종교로 자리하였던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측면을 통한 국민 교육의 차원에서는 윤리 교육을 중요시하였으며 전인 교육을 지향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인종(仁宗)때 학식(學式)의 제정으로 구체화된 교과 과정을 살펴 보면 유학 학부에서는 교양필수 공통과목으로 『논어』와 『효경』이 있었다. 그 외의 과목은 9경(經)[주역·상서·주례·예기·의례·모시·좌씨전·공양전·곡량전]이 있었으며 그 밖에 보수과목으로 산술과 시무책을 익히게 하였다. 또한 교양필수 공통과목은 일년을 한도로 이수하도록 되어 있었다.¹³⁾ 공민

11 『三國史記』 卷24, 「百濟本紀」 2, 近肖古王 30年條 : 秋七月 古記云 百濟開國已來 未有以文字記事 至是 得博士高興 始有書記.

12 『三國史記』 卷38, 「雜志」 7, 職官志上, ‘國學’條 參照.

왕 때에 이르러서 성균관이 중건되고 교과 과정이 사서(四書)와 오경(五經) 중심으로 개편되어 조선에까지 계속 이어지게 된다. 『대학』 · 『논어』 · 『맹자』 · 『중용』의 순서로 강문(講問)하여, 강설(講說)이 자세하고 정확하며 전체의 뜻을 잘 파악한 자는 다음의 경전을 공부할 수 있게 되었고 순차적으로 사서를 마친 학생은 그 다음으로 『예기』 · 『춘추』 · 『시경』 · 『서경』 · 『역경』의 순서로 수업을 하게 하였다. 고려때부터 내려오는 이 제도대로 시행이 되었든지, 아니면 이것은 하나의 원칙일 뿐이고 실제로는 수업 순서의 나눔이 없이 사서와 오경을 적당한 순서로 나누어 교육¹⁴⁾을 하였든지 간에 대학의 교육기관에서 왜 이러한 과목을 중심으로 교육하였가 하는 것이다. 그것은 조선 건국의 일등 공신으로 조선 초기의 사회 제도의 기틀을 정립한 정도전(鄭道傳)의 다음의 말에서 학교 설립과 학교의 교육 목적을 알 수 있다.

학교는 교화의 근본으로 인륜(人倫)을 밝히고 인재를 키우는 곳이다. 삼대(夏·殷·周) 이전에는 그 법이 크게 갖추어졌다. 진한(秦漢) 이후에는 비록 순연하지는 못하였으나 학교를 중히 여기기 않을 수 없었으니, 그것은 한 시기의 정치의 득실은 학교의 흥폐와 연관되었기 때문이다.¹⁵⁾

학교를 통한 교육의 기본적인 목적은 바로 사람됨을 밝히는 것 즉, 인간 교육이며 그것을 바탕으로 사회를 이끌어 갈 동량들을 육성해내는 데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그 사회가 온전히 유지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직접적으로 결정짓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 교육의 성패가 바로 온전한 사회 유지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다. 즉, 인륜(人倫)을 밝히는 것은 단순히 교육의 목표에만 그친 것이 아니고 사회적 목표이기도 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의 유교는 이러한 인간 교육을 이루기 위한 교과목들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인간됨을 강조하여 사회에서 인간이 살아가야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과목과 인간이 가지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 관계인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를 강조한 과목을 공통적이고 기본적으로 이수해야 할 과목으로 설정하였던 것이다. 즉, 개별 존재로부터 사회적 존재로의 이행 그리고 일차적이며 기본적 사회 집단으로부터 이차적, 삼차적으로 확장되어

13 『高麗史』 卷74, 「選舉志」 28, 「學校」條 參照.

14 閔炳河, 「韓國 儒學的 傳統的 教科課程」, 민족문화추진회, 『民族文化』 4, 1978, 87쪽.

15 鄭道傳, 『朝鮮經國典』, 「禮典」, 「學校」條: 學校教化之本也 于以明人倫 于以成人才 三代以上其法大備 秦漢以下雖不能純然 莫不以學校爲重 而一時政治之得失 係於學校之興廢.

가는 사회 집단과 관계의 이행의 절차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이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은 나 자신의 이름[成己]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 이외의 타자의 이름[成物] 그리고 만물의 완성으로 확장되어 되어가는 과정의 절차인 것이다.

III. 인간학적 차원의 유교 사상 교육

1. 유교 교육 사상의 내용

교육은 인간의 삶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있어 왔다. 인간은 이미 기성품으로 제작된 고정화된 틀의 소유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존재하며 형성되고 완성을 이루는 존재이다. 즉, 인간은 가능성을 소유한 존재이다. 인간 각자는 독자적 가능성을 지니고 태어났으며 동시에 인간에게는 이러한 가능성을 실현하여 현실화하려는 본질적인 욕구가 있다. 이러한 요구는 인간이 경험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인간 존재에 본질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인간의 존재 이유는 각자가 타고난 독자적인 가능성을 원만하고 조화롭게 실현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것을 ‘자아 실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다.

자아실현의 요구는 엄숙한 것이다. 그리고 실현에 대한 권리는 절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아실현의 요구와 권리의 인정이야말로 모든 윤리적 논의의 대전제가 된다. 그러므로 인간의 자아실현은 본질적으로 가치를 지향하고 의미를 추구한다. 또한 인간은 자신이 가진 잠재적인 가능성을 실현하되 본능적이거나 맹목적이 아니라 각자가 자각적으로 선택하는 원리와 이념에 의해서 실현하고자하는 가치적인 요구를 가지고 있다.¹⁶⁾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종교와 인간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로서의 윤리는 이미 상호 배척의 관점이 아니다. 양자간에는 상호 보완의 관계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즉, 양자는 서로 의지하고 서로 중요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인간의 가치적 요구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실제 교육되어지고 있는 유교 사상과 관련한 교육의 사례들 역시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겠다.

대학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양 과목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위한 교양 강좌로 많이 시행되고 있는 과목 가운데 하나가 『명심보감』이다. 이것은 전통 교육 과정

16 高範瑞, 『産業社會와 大學教育』, (서울: 기독교문사, 1981), 19쪽.

가운데 필독서의 하나였다. 즉, 기초 문자의 학습인 『천자문』을 교육한 이후에는 순서에 의해 반드시 학습해야 할 필수 교과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영향력을 가지게 된 이유를 경사자집(經史子集)의 여러 책을 비롯하여 기타 교양서 등과 선현들의 모범적인 언행의 기록을 뽑아 편저로 이루어진 이 책의 구성과 목차에서부터 필자는 찾아 보고자 한다. 특이할 만한 것은 제일 첫 편의 구성이 「계선편(繼善篇)」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가치의 제일을 선(善)의 실행에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음미할 만한 사실은 단지 실행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행선(行善)’이었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굳이 ‘계선(繼善)’이라고 편명을 붙인 것은, 유교적 시각으로는 인간의 본성은 선한 것으로 이해하며 이것은 생래적으로 확보되어 진다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추구하며 유지해야 할 가치의 하나가 선함이며 이것은 이미 확보되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현실 생활 속에서 혹은 망각하거나 혹은 육체적 욕구나 욕망 등에 의해서 가리여진 본래의 모습을 찾아 유지하고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다. 가능성의 존재인 인간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더불어 이것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후의 편명은 「천명편(天命篇)」이다. 인간의 본성 실현을 위한 확고한 배경으로서 초기 유가의 사고내에서 주재적이며 인격적인 신(神)의 속성까지도 내포하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는 천(天)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때 나타나는 천의 속성은 일반적으로 유가에서 이해하고 있는 천의 속성인 도덕의 본질, 인간 성품의 근원으로서의 보편적 원리이전의 모습으로 다분히 종교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인간은 반드시 추구해야 할 가치는 정도(正道)에 있으며 만약 그렇지 않은 방법으로 획득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이 그 결과에 대한 보상을 적절치 못하게 시행하더라도 반드시 절대적인 권위자에 의해 보답되어질 것이라고 하고,¹⁷⁾ 하늘은 반드시 그것을 놓치지 않을 것이며¹⁸⁾ 따라서 나쁜 일을 하여 하늘에 죄를 받게 되면 더 이상 인간이 의지하고 기댈 바가 없게 된다¹⁹⁾고 하고 있다. 인간 행위의 윤리적 근거와 가치는 인간의 윤리적 노력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이러한 윤리는 인간이 소유한 종교적 심성에 기인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후의 편(篇)에서는 내적 실현을 위한 자기 수양의 경구가 나타나고 이어서 이것의 사회적 실현을 위한 내용들이

17 『明心寶鑑』, 「天命篇」: 若人 作不善 得顯名者 人雖不害 天必戮之.

18 『明心寶鑑』, 「天命篇」: 種瓜得瓜 種豆得豆 天網恢恢 疎而不漏.

19 『明心寶鑑』, 「天命篇」: 子曰 獲罪於天 無所禱也.

나타난다. 편명을 통하여 나타나는 특징은 유교적 패러다임의 전형인 수기안인(修己安人)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여기에서도 철저한 자기 수양과 내적 실현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²⁰⁾

『명심보감』과 함께 동몽(童蒙)의 교재로 기본서적인 지위를 점하는 것이 『소학(小學)』²¹⁾이다. 『소학』을 통한 교육에서 확보하고자 한 내용 가운데 중요한 것의 하나는 수신(修身)이었다. 즉, 소학은 수신을 위한 입문서로 일상 생활에 필요한 행동들에 대한 지침을 기본으로 하여 개인적으로는 어진 인간을 양성하고자 하였고 사회적으로는 좋은 고을과 선한 풍속의 회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하겠다. 물 뿌리고 청소하며(灑掃)·타인과 응대하는 것(應對)·나아가고 물러가는 것(進退) 등에 관한 예절과 어버이를 친애하며(愛親)·어른을 공경하고(敬長)·벗과 친하게 함(親友) 등의 도리를 가르치고 있는 『소학』은 바로 일상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안에서 도덕 규범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편명의 편제와 그 내용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즉, 제일 첫 편인 입교(立敎)편의 내용은 사람을 가르치는 법을 세운다는 뜻으로 태교에서부터 시작하여 가정 교육 등을 논했다. 교육 목적과 방침이 정해진 뒤에야 비로소 목적하는 바의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첫 머리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편인 명륜(明倫)편에서는 오륜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교육의 목적과 방침을 정한 다음에 바로 인간 도덕의 기본이 되는 윤리에 대한 내용이 뒤따른 것이다. 그 다음의 편은 경신(敬身)편이다. 유교에서는 항상 자신을 경계하고 몸가짐을 올바르게 하

20 이후의 篇들의 내용은 孝行, 正己, 安分, 存心, 戒性, 勤學, 訓子, 省心, 立敎, 治政, 治家, 安義, 遵禮, 言語, 交友, 婦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1 『大學』의 序文에는 ‘三代之隆 其法寢備 然後 王宮國都 以及閭巷 莫不有學 人生八歲 則自王公以下至於庶人之子弟 皆入小學 以教之以灑掃應對進退之節 禮樂射御書數之文’이라고 되어있다. 이것으로 본다면 夏·殷·周의 삼대에는 소학이라는 학교가 있어서 연소자에 대한 정규 교육이 실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宋代에 와서 朱熹가 소학의 교육이 행하여지지 않음을 개탄하여 옛날에 소학에서 실시하였던 교육 내용으로 된 글들을 모으고, 또 그 글과 관련된 聖賢의 말과 행실을 수록하여 이 책을 만든 것이다. 책이름을 『소학』이라고 한 것도 학교 이름이었던 소학을 그대로 응용한 것이다.

조선시대 이후 학교의 정규 교과목으로 『소학』을 교육한 예를 찾기는 힘들었다. 『명심보감』이 현대 교양과목으로서 대학 및 일반인을 위한 교양과목으로 교육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그러나 필자가 여기에서 『명심보감』과 함께 『소학』의 교육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은 제도권 대학에서는 교양 과목으로 교육되고 있지는 않지만 전통 사상 교육 및 비제도권 교육에서는 여전히 유효한 교과목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또한 전통적인 교양 교육 내용에서 중요한 지위를 점하는 『소학』을 논의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이다.

기 위한 수양의 공부로 거경(居敬)을 삼는다. 인간의 도리와 인륜 도덕을 파악하고 난 후에는 그것을 유지하고 실천하기 이하여 자신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후의 편 들에서는 중국 고대 성현들의 언행을 상고하여 앞의 편들의 실재를 입증하고 있고(계고편), 한대(漢代)이후 송대(宋代)에 이르기까지 어진 사람들이 교훈이 되는 말과 미쁜 행실을 수록하고 있다. 따라서 그 안에 포함되어진 유교의 윤리이며 원리적 규범인 친·의·별·서·신(親義別序信)의 오륜(五倫)과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의 오상(五常)을 교육하는 것이며, 이러한 규범은 인간 사회를 구성 유지하는 원리적 규범들로서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것들이다.

혹자들은 이러한 원리적 규범들은 이미 구시대의 산물로서 오늘날에는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물론 규범의 내용은 항구적으로 고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그 내용이 변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원리적 규범 자체만은 변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소학』에서 주장하고 교육하고자하는 원리적인 규범들은 오늘날에도 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유교의 교육 이론은 인간이 착한 본성을 회복하는 복성(復性) 운동을 통하여 지고의 인격을 갖춘 성현에 이르고자 하는데 그 목표를 두었다. 다시 말하면 유교에서의 교육은 그 출발점을 일상생활의 성찰에 두고 있으며, 자기 자신의 완성과 타인의 완성 그리고 만물의 완성이 가능한 것은 일상 생활의 성찰과 수양을 통하여 가능하게 되는데 그 가능의 근거는 바로 인간 자신의 마음[心]에 두고 있는 것이다.²²⁾

2. 대학에서의 유교적 교양 교육의 실례

종교가 가지고 있는 교육 목표와 이념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곳은 종단에서 설립한 학교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한국에서 현재로서는 유교 종단이 직접적으로 학교 운영의 책임을 맡으며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학교는 없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그 상관성마저도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비록 현재는 법인이 분리되어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는 않지만, 학교의 설립당시 전체 유림대회의 결의를 통하여 설립되었고 설립 과정에서 유교인의 역할이 지대하였던 학교는 있다. 학교법인 성균관대학의 정관을 보면 제1조에 ‘유도정신(儒道精神)에 입각하여 도의(道義)를 천명하고 윤리(倫理)를 부식(扶植)하

22 金聖基는 이에 대하여 <「다종교사회와 유교의 종교적 의미」, 《종교교육학연구》8,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1999>에서 ‘보이지 않는 종교로서의 유교의 현대적 의미’로 설명하고 있다.

며 문화의 발전 및 공덕(公德)의 작흥(作興)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즉, 조선 초기 건국 공신이었던 정도전이 '학교는 교화를 근본으로 하고 인륜을 밝히는 것'이라고 언명한 바와 같이, 국립 중앙 교육기관이었던 성균관에서 지향하고 있었던 교육 목적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말의 유학자이고 독립운동가로 초대 총장을 역임한 김창숙은 학생들에게 당시 한국 사회의 혼란한 현실은 어느 방면을 막론하고 우리 민족의 전체적인 윤리 도의가 땅에 떨어진 것 때문이었다고 진단하고

무릇 국가의 흥망, 민족의 융체(隆替)가 모두 윤리도유의 성쇠로써 복(卜)할 것이며 윤리도(倫理道義)의 성쇠는 오직 교육지도 이념의 순(純) 불순(不純), 정(正) 부정(不正)에 달려 있나니 그러면 천하 만사가 오로지 윤리 도의의 명(明) 불명(不明), 행(行) 불행(不行)으로써 판단된다고 하여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윤리 도의가 진실로 우원난행(迂遠難行)한 별개 물사(別個 物事)가 아니요 다만 인생 일용(人生 日用) 당행(當行)의 도(道)를 가르침이니 그것은 즉 애친(愛親) 경장(敬長) 융사(隆師) 친우(親友) 등등 지극히 평이한 질서를 말함이다. 이것이 곧 우리 유학 교육의 정궤(正軌)이니 제군(諸君)은 무엇을 꺼리며 이 정궤 밖으로 탈출하려 하는가. 이 정궤밖에는 금수가 달아나는 길 뿐이니 천하병풍상성자(天下病風喪性者)가 아니면 어찌 그 길을 즐겨 취할 것인가. 유자(儒者)의 학문이 격물 치지(格物 致知)로부터 치국 평천하(治國 平天下)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윤리 도의에 근본을 두었나니 천하에 인륜된 자 반드시 살아도 윤리도의 정신에서 살아야 하며 죽어도 윤리 정신에서 죽어야 할 것을 여기에 거듭 거듭 말하는 바이다.²³⁾

라고 하였다. 유교적 교육 이념이 그대로 표현된 선언이다. 인간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윤리 도의의 필요성을 역설하였고 그 윤리 도의는 우리의 삶 한가운데서 비근하게 일어나는 행위에서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또한 학문하는 방법에 대하여도 언급을 하였다. 그 내용은 『대학』을 인용하여 말한 것이다. 『대학』에서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미 자체에 밝은 덕(明德)을 갖춘 존재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에게 갖추어진 명덕(明德)을 제대로 이해하여 밝혀내고 이를 타인의 관계속에서 실현하며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공용으로 실현시키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²⁴⁾ 다시 말하면 자신에게 생래적으로 갖추어진 명덕을 잘 닦아서 일차적으로 자아

23 金昌淑, 《成均》 6, 1955, 卷頭言(필자에 의해 한자는 괄호 안으로 처리하여 병기되었으며 원문의 고어 투에 대하여도 가능하면 그대로 두었지만 일부는 현대어로 표기되어진 부분이 있다).

완성을 실현하는 것이 명명덕(明明德)이며, 이를 더욱 넓히고 확장시켜 타인의 관계에서 사회적으로 실현해 내는 것이 친민(親民)이다. 그 결과 궁극적으로는 지선(至善)의 이상적 경지를 이루는데 그 목표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성취한 사람이 가장 이상적인 인간이며 이러한 이상적인 인간의 완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회가 가장 이상적인 사회인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삼강령(三綱領)이라고 한다. 사회 유지를 위한 정치의 득실이 학교의 흥폐에 달려 있다는 정도전의 말이 삼강령을 통하여 확인된다고 할 수 있겠다.

이것은 소학의 교육에서 확보된 생활 속의 예절과 예절의 이론적 근거를 학습한 후에 개인적이거나 가족적 차원에서 머물던 실천 범위를 사회, 국가, 천하로 확대해 나가는 교육이 이루어지게 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소학이 일상생활에서 인간의 도리인 오륜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는 것이라면, 대학에서는 그 방법의 이론적 근거를 배우고 이를 확산시키는 과정인 것이다.²⁵⁾ 소학 교육과 대학 교육은 이처럼 학문의 과정으로는 구분되지만 추구하는 목표는 모두가 일치하였다. 소학의 과정을 제대로 익히지 않으면 대학 공부의 기본이 되는 덕성을 기를 수가 없었으며, 소학 단계의 교육에 그치고 대학으로 나가지 아니하면 사물의 이치를 판별하고 이를 천하에까지 확산시킬 수가 없었다. 따라서 소학 교육과 대학 교육은 수준의 높고 낮음이나 시간의 선후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유교의 도(道)라는 공통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하나하나 밟고 올라야 하는 사다다리의 계단과 같은 것이었다.²⁶⁾

따라서 성균관대학교에서는, 인간이 타고난 천부의 덕목을 계발하여 참되고 착하며 아름다움에 기본을 둔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이 인간에게 부여된 사명이며 이것을 현실 생활에서 실천하기 위한 인격 도야와 학문 연마를 위하여 ‘유학 사상’ 과목의 교육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물론 세월의 변화에 따라 교과목의 시수(時數) 등의 변화는 있었지만²⁷⁾ 현재도 이 과목은 교양 과목이며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이다. 그에

24 『大學』, 經1章: 大學之道 在明明德 在親民 在止於至善.

25 『大學』 序文: 及其十有五年 則自天子之元子衆子 以至公卿大夫元士之適子 與凡民之俊秀 皆入大學 以教之以窮理正心修己治人之道.

26 박연호, 「주자학의 근본배양설과 조선전기의 소학교육」,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청계사학》 2, 1985, 78쪽.

27 성균관대학교는 1946년 해방후 개교 이래로 ‘유학개론’을 국어, 문화사 등의 과목과 함께 일반 교양과목으로 편성하여 공통 필수 과목으로 교육하였다. 1951년 완성된 학제에 의한 학점 기준에 의하면 당시에는 2년에 걸쳐(1학년 ‘儒學概論’ 8학점, 2학년 ‘儒學特講’ 8학점) 필수 과목으로 이수하게 하였다. 이후 ‘유학개론’은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중반에는 일반 교양과목의 필

더하여 교양 교육과정의 소개에서 교양 교육의 교육 목표는 인의예지를 갖춘 인격의 형성에 있으며 자신의 가치관 정립과 공동체 인식의 함양에 두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²⁸⁾ 이것은 교육의 역할은 인간이 지닌 특성을 열어주고 최대한 북돋워 주어서 자기 완성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에 충실한 것이고 그 결과 궁극적으로는 전 인류가 함께 지향하고 있는 이상 사회의 건설을 목표로 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유교의 전인교육적 특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현재 성균관대학교에서는 ‘삼품제(三品制)’를 실시하고 있다. 삼품제가 지향하는 목표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수준에 대하여 대학에서 보증하겠다는 의도로 실시 된 것이다.²⁹⁾ 이 삼품제 가운데 필자가 주목하는 바는 바로 인성품(人性品)이다. 사회로 진출하기 전 최소한의 인격과 도덕심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써 이 인성품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교양 필수인 ‘유학사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사회봉사를 30시간 이상 하여야 한다.³⁰⁾ 즉, 지식적인 이해의 완성과 더불어 사회적 실천을 하여야 한다. 자아 완성으로부터 그 자아 완성의 대타적 실천을 요구하는 것이다.

홍익인간(弘益人間)과 원융무애(圓融無碍)를 건학 이념으로, 참된 인성·창의성·실용성을 교육 목적으로 하고 있는 영산대학교에서는 교육 목적의 하나인 참된 인성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 목표로 동양문화에 기초한 건전한 가치관과 국가와 인류 사회에 대한 봉사 정신을 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뿌리 있는 국제화’를 위하여 전통 문화의 창조

수 4학점(1학년 1, 2학기 각 2학점. 1965년 과목명이 ‘유학’으로 변경됨)으로 변경되었다가 1967년 교과목 개정에 의해 다시 유학 I (1학년 1, 2학기 각 2학점 총 4학점)과 유학 II (2학년 1, 2학기 각 2학점 총 4학점)로 변경된다. (『성균관대학교 교사』, 성균관대학교사편찬위원회,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78) 2년에 걸쳐 교육되었던 ‘유학’과목은 1975년의 요람에 의하면 다시 1년 4학점으로 변경된다. 이것은 다시 1979년도에는 3학점(수업시간은 1, 2학기 각 2시간 총 4시간)으로 학점 축소가 된다. 이후 1996년도의 교과과정 개편으로 ‘유학사상’으로 과목명이 변경되었으며 2학점(1, 2학기중 선택하여 개설)으로 축소되어 현대에 이르고 있다.(성균관대학교 요람 참조).

28 『성균관대학교 요람(1996년 판)』, 교육과정편.

29 성균관대학교 요람(2000년 판) 참조. 三品이란 정보, 어학, 인성 세 가지 측면을 말한다. 이 세 측면 가운데 한 측면이라도 일정 정도 이상의 수준이 되지 않을 경우 졸업이 불가능하게 된다.

30 각기의 품에는 特品이 있다. 인성특품의 경우는 유학사상 점수를 A 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하며, 사회 봉사 100시간 이상과 학교에서 주관하는 예절교육(전통예절, 서양예절, 현대예절 포함)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성균관대학교 요람 및 성균관대학교 홈페이지 www.skku.ac.kr 참조).

적 계승의 한 방법으로 『논어』를 교양 필수로 교육하고 있다.³¹⁾ 『논어』는 유교의 집대성자인 공자의 사상이 가장 정확하게 드러난 유교의 중요한 경전 가운데 하나이다. 2시간 2학점으로 강의되고 있는 『논어』 과목을 인격 교육을 위한 중요한 내용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유교 경전인 『논어』를 통해 인격 함양을 위한 전인적 인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강원도 동해시의 경동대학교는 ‘충효인경(忠孝仁敬), 자강불식(自強不息)’을 바탕으로 창조적이며 인간다운 인간교육, 공동체를 위해 함께 땀 흘리는 인간애의 함양, 나와 겨레와 미래를 위한 정진(精進)을 교육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특별히 인성 교육을 강조하며 그 교육의 일환으로 『명심보감』을 교양 과목으로 강의하고 있다.³²⁾ 또한 서울의 서일대학은 2년제 대학으로 지식과 덕망을 겸비한 전문인력 양성을 교육 목표로 삼고 지덕배양(知德培養), 초지일관(初志一貫)을 교육 이념으로 하고 있으며 2시간 2학점으로 『동양철학』을 교양 필수 과목으로 하고 있으며, 2시간 2학점인 ‘직업윤리’ 과목 시간에 대부분의 학과가 『명심보감』을 교육하고 있다.³³⁾ 현재 각 학급 학교에 개설된 과목으로서의 직업 윤리에 대하여는 명확한 기준과 학문적 범주가 아직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물론 ‘직업윤리’라는 교재는 다수 출판되어 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의 내용은 공공 윤리 혹은 시민 교양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는 과정에서 직장 역시도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하고, 공동체 삶의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직업인의 위치를 규정한다면 직업 공동체를 구성·유지·발전시키기 위한 개인 인격체의 인격 교육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가치와 인간 행위의 윤리적 근거, 윤리 실현을 위한 자기 수양의 내용으로 구성된 『명심보감』을 교육하는 것은 전문 기술과 인격 교육을 동시에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대학의 교육에서 유교 사상과 관련된 내용을 교양 과목으로 삼아 교육하는 것은 단순히 한 종교의 교리를 습득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교육이며 이것은 인간학적인 교육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교육의 목표와 과정은 오랜 역사를 전통을 지니며 형성된 유교 교육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31 영산대학교 홈페이지(www.ysu.ac.kr) 참조.

32 경동대학교 홈페이지(www.kyungdong.ac.kr) 참조.

33 서일대학 요람(1999년판) 및 서일대학 홈페이지(www.seoil.ac.kr) 참조.

IV. 대학의 교양 교육과 종교의 만남

1. 인간을 위한 접점으로서의 종교와 도덕

대학에서의 교양 교육의 목표는 일반적인 의미로 말한다면 전공 교육에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기본 교육이다. 전공 교육이 어느 한 학문에 깊은 지식을 얻기 위하여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인 반면에 교양 교육은 여러 학문 영역에서 제공하는 중요한 교과목들을 균형 있게 이수함으로써 폭넓은 지식을 획득할 수 있게 해주는 교육과정이다. 그러므로 교양 교육에는 재학 중에 뿐만이 아니라 졸업 후 학습을 계속해 나가는 데에도 필요한 도구 또는 기술이 되는 과목뿐 아니라, 미래의 개인적 생활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는데 도움을 줄 인간과 사회, 그리고 자연에 대한 광범한 지식의 제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교양 교육의 한 측면에는 인간을 위한 즉, 올바른 인간상 정립을 위한 목표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학적 측면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철학과 종교가 개입될 수 있다.

각 종교를 통해 인간이 체험하는 성(聖)스러움(성스러운 존재)은 인간에게 어떤 행동을 구속하거나 명하는 성격을 지닌다. 인간은 ‘성스러운 존재’의 뜻을 헤아리고 깨닫고 받들며, 마침내는 인간이 걸어가야 할 길(倫理)을 규정한다. 어떤 것을 ‘성스러운 것’으로 인식하고 인정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종교적 영역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고유한 가치 평가이며, 이 가치 평가는 곧 다른 영역, 예를 들면 윤리로 파급되어 가는 것이다.³⁴⁾ 이미 계몽기의 여러 대표적인 교육 사상가들이 종교의 가치 체계를 윤리적 관점에서 파악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들은 인간의 품위와 가치는 인간의 윤리적 노력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윤리는 인간의 종교성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 교육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필수적이라고 한다.³⁵⁾

사실 이율배반적인 것처럼 이해될 수 있는 종교와 도덕은 본질적으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즉, 종교와 윤리간에는 상호 배척의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의 관계가 성립한다. 양자는 서로 의지하고 서로 중요한 도움을 받는다. 그것은 서로 주고받는 관계이다.³⁶⁾ 그것에 대해 도덕이 종교에게, 종교가 도덕에게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는 다음과 같다.

34 루돌프 오토, 김희성 옮김, 『성스러움의 의미』, (서울: 분도출판사, 1991), 37쪽.

35 오인택, 『기독교 교육』, (서울: 종로서적, 1984), 137쪽.

36 J. 헤센, 허재운 옮김, 『종교 철학의 체계적 이해』, (서울: 서광사, 1994), 70쪽.

도덕은 종교를 위해 어떤 전제를 마련해 준다. 종교는 인간에게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인간 존재에는 도덕적 의식, 즉 선과 악에 관한 지식이 속해 있다. 이러한 의식이 없는 곳에서는 즉 그러한 의식이 전혀 발달해 있지 못하거나 또는 위축해 있는 곳에서는 종교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 도덕은 종교에 대한 접합점이 될 수 있다. “종교적 체험은 윤리적 가치와 가장 가깝고 또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윤리적 가치로부터 나오는 당위를 그것의 직접성에 있어서 깊이 체험하는 자는 그 당위를 무제약적 의식, 성스러운 의지의 표현과 발휘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음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도덕은 종교에게 표현 가능성과 작용 가능성을 제공한다. 신은 인간의 일체의 오성적 인식을 벗어나 있는 초이성적인 존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것처럼 파악될 수 없는 자를 파악하려고 언제나 되풀이하여 시도한다. 그것은 인식이 가능하게 되는 특정한 개념들에 의해 가능하며 이 개념들에는 윤리적 가치 개념도 속해 있다. 이러한 것에 비하여 종교는 도덕을 실천하고자 하는 동기를 촉진시키고 강화시킨다. 도덕 법칙에 대한 순종은 종교적 신앙에 있어서는 결국 그 법칙을 통해서 자신의 의지를 천명하는 신에 대한 순종이므로 도덕적 생활을 통해 신 앞에서의 변화가 되는 것이다. 종교는 도덕에 대해 힘의 증가를 의미할 뿐 아니라 가치 내용의 증가를 의미한다. 단순한 윤리적 영역을 넘어서 있는 초자연적인 외경과 겸손의 태도도 존재하기 때문이다.³⁷⁾

종교적 교육을 통해 인간의 도덕을 이룰 수 있고 실천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본 고에서 특별히 살필 부분은 교양 교육과의 관계이다. 교양은 이미 누구나 다 갖추고 있다. 교양을 갖춘다는 것은 특정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이상적인 삶이 방식을 익히 알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교양이란 사고 양식의 총체, 제스처, 가치 표현 방식 그리고 능력 등 제2의 천성이 된 삶의 양식이다. 고대 그리스 시대의 교양인은 그 시대의 교육 이념이었던 선과 미를 갖춘 사람이며 로마 시대에는 예의 범절을 지향하는 품행을 갖춘 사람을 교양의 전형으로 삼았다. 이러한 교양은 사회 기관을 통해서 형성되기도 하는 것으로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이러한 교육 기관은 존재해왔다. 교양이 교육 기관을 통한 산물이 될 수 있다면, 학문을 연마하는 과정인 대학의 교육을 통하여도 형성 가능한 것이다.³⁸⁾

2. 유교적 종교 체험과 대학의 교양 교육

37 J. 헤센, 허재운 옮김, 『종교 철학의 체계적 이해』, (서울: 서광사, 1994), 71-81쪽.

38 Karl Jaspers, 이수동 역, 『칼 야스퍼스의 대학의 이념』, (서울: 학지사, 1997), 53-55쪽.

유교가 종교인가 아니면 윤리 규범·전통 사상·통치 철학의 한 범주인가에 대한 논의는 현재까지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³⁹⁾ 그러나 유교도 인간의 삶과 연관되어진 문화의 하나이고 모든 문화는 일정한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다고 전제한다면, 유교 역시도 나름대로의 일정한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세계관에는 그 집단에 속한 인간들의 의식과 사회의 구조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끼친 상징이나 신념의 역사와 성격이 내포되어 있다. 또한 한 집단내의 인간과 사회를 통하여 형성된 세계관에 대한 신뢰는 그 세계관이 지향하고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신뢰로 이어진다. 가치에 대한 신뢰는 바로 실재(實在)라는 측면을 함유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종교 역시도 하나의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대의 종교학 또는 세계관에 대한 분석에는 인간 삶의 측면으로 작용하는 경험·윤리·신념·의례·제도 등의 요소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종교는 대체로 교리적·철학적 차원, 신화적·서사적 차원, 윤리적·율법적, 의례적·실천적, 경험적·감정적, 사회적·조직적 차원의 여섯 차원을 갖고 있다. 이 차원에서 종교는 일정한 가르침에 대한 체계를 유지하며, 나름대로의 윤리체계를 가지고 이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특정한 가치나 교훈을 따를 것을 요구하고, 이를 실천화하는 의례를 강조하며, 종교적 실천과 교훈을 실행하기 위한 독특한 제도를 만들기도 하며, 나름대로의 경험과 감정을 통하여 종교적 전통의 형성을 촉발하기도 한다.⁴⁰⁾

최근덕은 유교는 종교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 ‘인류의 마로[宗]가 되는 가르침[敎]인 유교는 종교일 수 밖에 없다’고 한다. 그 이유로 유교는 첫째 만세(萬歲)의 스승인 성인

39 “유교는 종교인가?”에 대한 논의는 19세기 말에 중국에서 이미 등장한다. 이후 한국에서는 張志淵, 朴殷植 등에 의해 개진되어진다.(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의 내용은 금장태, 「서양종교와 전통사상과의 관계」, 『동양철학과 종교』, (서울: 한국동양철학회, 1986), 96-97쪽 참조) 성균관은 1994년 선출된 최근덕 성균관장의 취임 이후 유교 제도 개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995년 11월 28일 ‘宗憲’을 제정한 바 있다. 그 골자는 ‘유교의 종교화 선언’으로 요약되며, 종단의 명칭을 ‘성균관 유도회’에서 ‘성균관 유교회’로 고치고, 공자를 기독교의 예수나 불교의 붓다에 비견할 수 있는 宗師로 『四書五經』을 『바이블』이나 『코란』에 비견할 수 있는 경전으로 삼겠다는 것이다.(고건호는 이 것을 한국 유교 1600여 년의 역사에 남을 특별한 사건이라고 하고 있다. 고건호, 「유교는 종교인가」, 『종교 다시 읽기』, (서울: 청년사, 1996), 105-106쪽) 그러나 이 개혁안은 유교인들의 격렬한 찬반양론에 부딪쳤으며 결국 성균관장의 퇴임과 함께 별다른 성과 없이 묻혀버리고 말았다. 이후 유림의 심한 내홍을 겪은 후 취임한 최창규 성균관장은 다시 ‘유교는 종교가 아니라 윤리 도덕 운동이다’(1998년 10월 취임사)라는 선언을 하였다.

40 니니안 스마트, 김윤성 옮김, 『종교와 세계관』, (서울: 이학사, 2000), 15-30쪽.

(聖人)을 모시고 있고, 둘째 시공(時空)을 초월하는 대경대법(大經大法)으로 인간의 구극적(究極的)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제시해 주고, 셋째 개인과 사회의 이상 실현을 위해 일관지(一以貫之)하는 신앙 체계가 있고, 넷째 사례(四禮)를 비롯한 의식이 있고, 다섯째 이단 배척의 위엄도 지니고 있으므로 종교일 수 밖에 없다고 한다.⁴¹⁾ 즉 인간 삶의 측면으로 작용하는 경험·윤리·신념·의례·제도 등의 요소 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금장태는

아침에 눈을 뜨면서 유교적 삶이 시작된다. 세수하고, 머리 빗는 단장도 부모님께 문안하는 일도 모두 유교적 수양의 조목이다. 거리에 나오면 모든 사람을 큰 손님 모시듯 공경하는 마음으로 만나는 자세도 유교의 가르침이다. 유교는 세속적인 일상 생활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속 속에 있다. 신성성은 세속성을 넘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속성을 이끌어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⁴²⁾

라고 하여 유교를 ‘인간의 삶인 일상 생활에서 가장 비근하고 사소한 데까지 젖어 들어있는 종교’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유교는 하나의 문화로 이념 체계를 형성하여 인간 삶의 측면에서 나름대로의 경험과 신념을 통하여 윤리적 요소를 갖추고 이것을 의례와 제도를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종교라고 할 수 있다.⁴³⁾

종교로서의 유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주목할 것은 다른 종교들과 비교하여 매우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즉, 현실에서의 인간의 문제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다.⁴⁴⁾ 이러한 논의 구조를 바탕으로 유교를 정의한다면 ‘인간학’이라고도 할 수 있다. 유교는 현실에서의 인간 삶에 대한 종교이다. 그 결과 현실에서 인간 삶이 지향해야 하는 가치의 문제는 바로 윤리적인 측면으로 대두된다. 윤리적인 것은 인간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유교는 윤리적인 면에서 다른 어떤 종교들보다도 다양한 인간 관계를 설정하여 그 관계에서 윤리적으로 처신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유교는 내세보다는 현세의 인간 관계

41 최근덕, 『한국 유학사상연구』, (서울: 철학과 현실사, 1992), 257쪽.

42 금장태, 『한국 유교의 이해』, (서울: 민족문화사), 1989, 31쪽.

43 황필호는 「유교는 종교인가」에서 유교의 종교성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하고 유교가 종교인가의 여부에 대해 다각도로 고찰한 후 ‘유교는 종교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황필호, 「유교는 종교인가」, 한국공자학회, 《공자학》 7, 2000, 21-49쪽.

44 孔子는 『論語』에서 ‘未能事人 焉能事鬼’(「先進」 11) ‘未知生 焉知死’(「先進」 11) ‘子不語怪力亂神’(「述而」 20)이라고 하여 자신의 주 관심의 대상은 현실과 현실에서의 인간 삶의 문제에 있음을 피력하고 있다.

를 중요시했고, 각 인간은 자신이 처해 있는 인간 관계에서 마땅한 도리를 지키는 것이 예(禮)이며 윤리라고 보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부자유친(父子有親), 군신유의(君臣有義), 부부유별(夫婦有別), 장유유서(長幼有序), 붕우유신(朋友有信)으로 표현되는 오륜(五倫)이다. 이러한 것이 가능할 수 있는 유교의 종교적 성(聖) 체험은 곧 천명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⁴⁵⁾ 천명에 의해 인간의 마음속에는 기본적인 양심이 있게되며 그 결과 인간은 ‘선한 일을 행하고 악한 일을 피하는’ 기본 원리를 따르게 된다. 그것은 유교의 윤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바의 인간의 기본적 품성을 잘 발휘하여 마침내 인(仁) · 의(義) · 예(禮) · 지(智) · 신(信)과 같은 덕목을 이루고, 매사에 과불급(過不及)을 조절하는 중용(中庸)을 이루어 내게 된다. 이러한 덕(德)의 단서로서 측은지심(惻隱之心) · 수오지심(羞惡之心) · 사양지심(辭讓之心) · 시비지심(是非之心)이 있는데, 이것은 인간이면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있는 천부적인 것으로서, 태어나면서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고 구체적 행위 방법을 배우 않아도 할 수 있는[良知, 良能] 네 가지의 단서가 된다고 하고 있으며 이를 사단(四端)이라고 한다. 따라서 인간은 하늘로부터 받은 이러한 좋은 품성을 잘 발휘하여 인간 완성에 도달하여야 한다. 이러한 완성을 이룬 이상적 인간을 군자라고 한다. 따라서 군자는 늘 자기의 양심을 살피고 하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자이며, 홀로 있을 때에도 신중하여야 하는 것이다.⁴⁶⁾ 그리고 군자는 상황에 따라 올바르게 처신할 수 있는 자이다.⁴⁷⁾ 이상적 인간인 군자는 결국 윤리 도덕의 완성을 이룬 실천자인 것이다. 또한 그것이 내면화되고 천성화된 존재로 사회 이념과 공용을 실천할 수 있는 존재이다.

유교의 종교적 체험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대학의 교양 교육이 지향해야 하는 방향과의 접점은 형성될 수 있다. 즉, 종교와 윤리 도덕은 인간을 위한 지향처라는 점에서 접점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은 현실적 존재이다. 현실에서 인간이 어떠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가의 문제가 해결의 관건이다. 현대의 대학교육이 추구하고 있는 바는 인간을 기능적 존재로 양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능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수단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지대하다. 그러나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 자각(自覺)의 가능성을 가진 주체적 존재이다. 따라서 대학의 교육 과정 가운데 전공 교육은

45 김웅태, 「종교가 인간의 윤리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 신학과 사상》 19, 서울: 가톨릭대학교출판부, 1997, 145쪽.

46 『中庸』 제1장 : 莫見乎隱 莫顯乎微 故君子 慎其獨也.

47 『中庸』 제2장에서는 “君子之中庸也 君子而時中”라고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주자는 “君子之所以爲中庸者 以其有君子之德 而又能隨時以處中也”라고 하고 있다.

기능적 측면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특히 교양 교육을 통하여 전인적 인격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인 교육적 인격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특별히 유교적 측면의 관점에서 본다면 예시한 바와 같이 품성 교육과 그 실천을 교육 방법으로 하는 즉,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교육적 방법들을 통하여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유교가 종교 교양 교육의 지평에서 현실적으로 투영 가능한 방향으로서는 현실적 인간 욕구의 무조건적인 발산을 제어하고 조절하며 절제된 행위를 통하여 도덕심을 드러낼 수 있는 실천적 의례, 또한 인간의 마음을 순화시키고 조화롭게 하기 위한 악(樂), 이러한 것들이 공동체 지향의 인간 삶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지는 윤리 도덕의 함양, 개인적 수양을 통하여 이러한 것을 체득하고 유지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거경(居敬)·심성(心性)의 수양 교육 등이 기능적 측면으로 경도되어진 현재의 대학 교양 교육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종교로서의 유교가 대학의 교양 교육을 위하여 제시하는 방향이 될 수 있겠다.

V. 결론

현대의 학문과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바는 이제 가치 판단이다. 그 동안의 연구 성과들은 그것이 사실적으로 존재했었는가 또는 사실적인 정확성은 어떠한가에 대한 추구를 지향하는 사실 판단적이었다. 이미 사실 판단을 통하여 수많은 학문적 성과들이 드러났다. 그 과정에는 인간에 대한 고려가 개입할 여지는 적은 것 또한 사실이다. 현대의 대학 교육 역시도 효용성 중심의 사실 판단에 의거하여 내용으로 변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적 효용성 중심이 아니라 사실 판단을 통하여 확보된 내용들을 운용할 주체인 인간과 그 내용의 인간학적 가치 판단에 대한 기본을 형성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것들이다. 인간학적 가치의 내용에는 도덕적 요소들이 포함되며 이러한 윤리 도덕적 요소들에 의해 인간의 삶의 질이 결정되어질 수 있는 판단이 필요한 것이다.

이미 본질적으로 상호 연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종교와 도덕은 인간의 향상된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는 판단의 기준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그것은 또한 특정한 사람만이 소유한 것이 아닌 누구나 모두 갖추고 있으며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이상적인 삶의 양태인 교양을 확보하기 위한 이념을 제공하고 있다. 교양의 함양은 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교육은 기관을 통하여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대학에서의 교양 교육은 산업 사회에서의 기능의 운용을 담당하는 인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인간 자체는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수단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현대의 탈종교화 및 세속화되어 가는 현실 속에서 종교가 파멸화되지 않고, 인간학적으로 존재하며 본래의 목적을 온전히 실현해내기 이하여는 당위적으로 추구하여야 할 바이기도 하다. 물론 인간의 자유를 완성시키고 실현해 내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인간과 자연, 사회 또는 삶에 대한 학문적 인식 등의 풍부한 교양을 몸에 지니게 되어 개인의 완성뿐만이 아닌 인간 군상들의 성장과 발전을 통한 물아일여(物我一如)의 경지를 체득하고 이를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종교적인 성(聖)스러움의 체득을 통하여 성스러운 존재를 닮아가려는 또는 그와 같은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욕망을 소유한 인간들이 지향하는 바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 『경서』 (대학·논어·맹자·중용), 서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영인본.
 『고려사』, 북한 사회과학원 고전연구소 편찬, 아름출판사 영인본.
 『구당서』 3, 이십오사 24, 대만: 예문인서관 영인본.
 『명심보감』, 성백효 역주,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1992.
 『삼국사기』, 이병도 역주, 서울: 을유문화사, 1991.
 『소학』, 김성원 교열, 서울: 명문당, 1997.
 『조선경국전』, 정도전, 영인본 한국문집총간 5, 삼봉집,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고건호 외, 『종교다시읽기』, 서울: 청년사, 1996.
 고범서, 『산업사회와 대학교육』, 서울: 기독교문사, 1981.
 금장태, 「서양 종교와 전통사상의 관계」, 『동양철학과 종교』, 서울: 한국동양철학회, 1986.
 _____, 『한국 유교의 이해』, 서울: 민족문화사, 1989.

- 김성기, 「다종교사회와 유교의 종교적 의미」, 《종교교육학연구》 8,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1999.
- 김웅태, 「종교가 인간의 윤리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 신학과 사상》 19, 서울: 가톨릭대학교출판부, 1997.
- _____, 김웅태, 「종교의 현대적 적응」, 《가톨릭 신학과 사상》 27, 서울: 가톨릭대학교출판부, 1999.
- 민병하, 「한국 유학의 전통적 교과과정」, 《민족문화》 4, 서울: 사단법인 민족문화추진회, 1978.
- 박연호, 「주자학의 근본배양설과 조선전기의 소학교육」, 《청계사학》 2, 성남: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 오인택, 『기독교 교육』, 서울: 종로서적, 1984.
- 이광세 외, 『동서문화와 철학』, 서울: 철학과 현실사, 1996.
- 이석우, 『대학의 역사』, 서울: 한길사, 1998.
- 최근덕, 『한국 유학사상 연구』, 서울: 철학과 현실사, 1992.
- _____, 「유교와 미래사회」, 《종교와 문화》 2, 서울: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1996.
- 함재학, 「교육의 정치적 의의와 전통」, 서울: 전통과 현대사, 《전통과 현대》, 1998, 여름호.
- 황필호, 「유교는 종교인가」, 《공자학》 7, 서울: 한국공자학회, 2000.
- J. 헤센, 허재운 옮김, 『종교 철학의 체계적 이해』, 서울: 서광사, 1994.
- Karl Jaspers, 이수동 역, 『칼 야스퍼스의 대학의 이념』, 서울: 학지사, 1997.
- N. 스마트, 김운성 옮김, 『종교와 세계관』, 서울: 이학사, 2000.
- R. 로버트슨, 이원규 역, 『종교의 사회학적 이해』,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0.
- 루돌프 오토, 길희성 옮김, 『성스러움의 의미(The Idea of Holy)』, 서울: 분도출판사, 1991.